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 : 용기모델과 민주화 전략*

양길현**

I. 문제의 제기

미얀마의 현대사는 크게 3번의 분기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의 분기점은 2차대전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압도적인 가운데 주어졌다. 아웅산으로 대표되는 미얀마의 30인 지사는 2차대전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1948년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연방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두 번째의 계기는 위로부터의 쿠데타라는 형식과 집권엘리트 내 권력투쟁의 양상을 띠면서 나타났다. 공산주의로부터의 위협과 미얀마 소수종족집단의 분리독립 요구를 봉쇄한다는 명분 하에 1962년 네윈(Ne Win)이 주도하는 군부통치가 성립되어 '버마식 사회주의'의 기치 하에 동서냉전의 소용돌이와는 거리를 둔 채 자립-중립-국가주도의 발전전략을 추구해 나가는 또 한번의 재출발을 하게 된다.

세 번째의 전환은 아래로부터의 체제전환 요구로 촉발된다. 1980년대 중반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의 실패와 아시아 지역내 탈권위주의화 물결의 영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041-C00103).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yangh@cheju.ac.kr

향을 받으면서 미얀마에서도 개방과 민주주의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분출된다. 그러나 이 세 번째의 민주주의를 향한 체제전환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비관적인 불확실성이 미얀마를 지배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얀마 현대사의 세 번째 전환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불확실하고 지지부진한 이 세 번째 전환기간은 또한 아웅산수지가 1988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¹⁾ 이후 오늘날(이 논문의 집필 시점인 2002년) 까지 약 15년에 걸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세 번째의 체제전환을 특징짓는 불확실성과 과도기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8년 미얀마 민주항쟁을 거치면서도 미얀마군부는 네윈의 막후조정을 통해 군의 단합과 결속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군의 단합된 물리력을 토대로 하여 2002년 말 현재까지 군부통치를 지속시켜 나가고 있다. 미얀마는 1988년 미얀마 민주항쟁과 1990년 5월 총선이라는 두 번의 정치적 계기를 통해 민주화의 가능성을 맞았었지만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좌절된 민주화'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미얀마 국민들의 개방-민주주의의 요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2002년 오늘날까지도 미얀마 정국은 여전히 과도기성과 유동성을 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얀마의 과도기성은 그만큼 미얀마 민주주의의 구조적 조건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미얀마의 민주화 가능성과 관련한 구조적 조건은 암담하다. 민주주의의 경제적 조건 내지는 경제적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사무엘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에 따르면, "가난은 민주주의 발전의 주요한 — 아마도 유일하게 주요한 — 장벽이다" (헌팅톤 1995: 49). '경제성장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경제성장을 통해 시민문화의 향상, 문맹률의 감소, 분배자

1) 아웅산수지는 1988년 8월 26일 양곤의 슈웨다곤 파고다 서쪽 운동장에서 열린 대집회에서 연설을 통해 처음 정치활동에 나선다. 이 연설에서 수지는 자신이 오랫동안 미얀마에 살지 않아서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국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미얀마의 정치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반박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1988년의 사태에서 그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단호하게 표명하였다.

원의 마련, 국제주의적 성향과 민주적 사상에 대한 개방 그리고 중간계급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미얀마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친 일당군부독재 하에서 경제적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물질 토대가 취약하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통제와 억압 그리고 고립과 폐쇄로 점철되어 있는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추동시킬 수 있는 구조적-경제적 조건을 찾고자 하는 작업은 하나의 소망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분명 1988년 미얀마 민주항쟁의 실패와 그 이후 전개된 미얀마 정국의 퇴행은 경제적 토대와 효과적인 정치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진행되는 아래로부터의 변혁운동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논문은 구조적 제약을 넘어서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민주화가 가능할 수 있는 정치적 동학을 추적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미얀마의 열악한 구조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특히 이웅산수지(Aung San Suu Kyi) 라는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효과를 통해 미얀마의 민주화 가능 영역을 찾아 나서는 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동력으로 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정치경제론적 주장을 심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지도력이 민주주의를 현실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의 "노련하고 단호한 지도자"의 민주화 전략에 강조점을 둔다는 것을 뜻한다(헌팅톤 1995, 53). 이 논문은 1)야당 정치지도자로서의 이웅산수지가 보여주는 독특한 리더십 특성은 무엇인지, 2)미얀마의 열악한 구조적 상황에서도 수지의 민주화리더십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미얀마의 정치과정적 맥락과 자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3)미얀마의 민주화 가능성을 열기 위해 수지에게 요청되는 전략은 어떤 것인지 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리더십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특성론과 상황론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²⁾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절충하여 이웅산수지의 개인적 특성이 1990년대 미얀마라는 특정의 상황에서 어떻게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연관되고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특성론에 입각하여 아웅산수지의 독특한 개인적 강인함이라든가 용기와 같은 특성 그리고 수지만이 보유할 수 있는 남다른 사명감에 강조점을 두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론의 주장처럼 수지의 유효하고 남다른 개인적 특성이란 것이 고정된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황론의 주장처럼 미얀마의 19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등 시대변화에 발맞춰 아웅산수지의 진단과 처방 및 동원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데에 리더십의 유효한 역할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수지의 어떤 개성적 특성이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추동해 나감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유효성을 높여 왔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2000년대 미얀마의 현실에 맞추어 아웅산수지의 리더십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책과 전략의 모색이란 차원에서 리더십의 동태성을 규명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로버트 터커(Tucker 1981:18-19)가 얘기하는 진단, 처방, 동원이라는 3가지 리더십 기능이 구체적으로 아웅산수지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즉 이 논문은 1)진단: 수지의 현실상황 인식이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2)처방: 야당 정치지도자로서 수지는 어떻게든 선거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해 군부정권과 의사소통을 전개해 나갈 필요성과 그 전략, 3)동원³⁾: 수지가 미얀마의 시민사회내 주요 정치 세력들—특히 학생집단, 승려집단, 소수종족—과 압목적 연대를 이루면서 어떻게 국제적 지원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라는 3가지 측면에서 미얀마의 현 주소를 조망해 보고 미얀마 민주화의 가능성을 추적하고자 한다.

2) 리더십 유효성과 관련하여 특성을 강조하는 특성론, 행동유형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론, 그리고 상황 요인에 중점을 두는 상황론, 그리고 특성과 행동, 상황의 부합관계를 밝히는 콘틴전시(contingency)이론에 대해서는 마사오(2000:32-45) 참조.

3) 벤즈도 리더십을 집단적 목적을 위한 "상호적인 동원과정"(벤즈 2000:697)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I. 이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의 특성 : 용기모델

리더십 특성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이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둔 '용기모델'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수지의 용기는 아무도 네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1989년 당시 시점에서 미안마의 경제실패와 인권탄압의 책임자로 네윈을 지목하여 공개적으로 비판⁴⁾함으로써 "금기조항을 깨뜨린"(Win 1992:94) 이래 오늘날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수지의 이러한 용기를 높이 평가하여 1991년 10월 노벨평화상위원회는 이웅산수지에 대한 노벨평화상수상 이유를 "수지의 활동이 근년의 아시아에 있어서 용기있는 시민운동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심벌"(이웅산수지 1996:9)이라는 점에 둔 바 있다. 수지에 대한 이와 같은 국제적 평가의 연장선 상에서 필자는 '용기모델'을 통해 다른 어떤 특성보다도 수지가 미안마의 열악한 구조적 상황 하에서 꾸준히 민주화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는 강인함과 사명감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웅산수지 특유의 용기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물론 많은 경우 리더십은 남다른 체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하지만, 특히 민주화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야당지도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민주화운동 지도자는 연금상태에 놓일 수도 있고 장기간 투옥되어 건강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때도 적지 않으며 혹은 반정부 투쟁의 한 수단으로서 장기간 단식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장거리 여행을 강행하면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고 연설을 해야 할 때가 자주 있다. 이렇게 민주화운동 지도자는 열악한 조건에서 열정적으로 반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남다른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웅산수지의 강인함은 10여 년이 넘게 꾸준히 전개되어 온 미안마의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4) 1989년 6월 시위군중에 대한 발표를 비난하면서 이웅산수지는 미안마 군사정권을 실제로 움직이면서 국민을 괴롭히고 자신의 부친이 쟁취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린 원흉은 바로 '네윈'이라고 공공연히 규탄하고 나섰다.

자 기수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아웅산수지에 대한 미얀마 군사정부의 탄압 기제는 수지의 대외접촉과 정치활동을 봉쇄하는 가택연금이다. 네윈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아웅산 암살 42주년 기념식 행사 개최를 이유로 1989년 7월 20일 아웅산수지는 가택연금에 처해 있다가 1995년 7월 10일 일단 가택연금에서 풀려난다. 그러나 가택연금이 해제된 수지와 군사정부간의 어떤 정치적 대화나 협상의 움직임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수지의 여행자유와 정치활동은 계속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지의 지적처럼, “나는 가택연금에서 풀렸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 외에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Asian Bulletin, September 1995:41). 그나마 가택연금 해제 이후 매주 토요일 아웅산수지의 자택 주위에서 가졌던 토요일집회마저도 1996년 9월 이후로는 금지된다.

1990년대 내내 수지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국내인들과 만나는 것을 제한 받았으며, 전화가 고장나거나 도청되는 일이 다반사고, 그녀의 차가 공격을 당하는 등 항상적인 위협과 핍박을 받았다. 1996년 가택연금 해제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⁵⁾ 예를 들면 1998년의 경우 7월 7-8일과 24-29일 그리고 8월 12-24일 아웅산수지가 양곤을 떠나려 하자 미얀마 군부는 이를 막았고, 이에 항의하여 수지는 차안에서 각각 6일과 12일 동안 버티다가 강제 귀가 조치를 당한 적도 있다(Seekins 1999:13). 2000년 8월과 10월에도 수지가 양곤을 떠나는 것을 막으려는 경찰과 노상에서 9일간 대치를 벌였다. 물론 아웅산수지의 이러한 노상대치는 일면으로는 미얀마정부의 탄압에 대한 야당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항의라는 정치과정적 행위인 동시에 다른 면으로는 이러한 비폭력의 불복종 저항을 통해 미얀마정부의 탄압성을 외부세계에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전략적 계산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The Economist, Sept. 2-8, 2000:29; 최재현 2002:179-180). 어떻든 지난 10여 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5) 아웅산수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택연금 해제는 2002년 5월 6일부터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데, 이 때 이후 아웅산수지는 상당한 수준의 여행자유와 대민접촉을 허용받고 있다(EIU August 2002:12).

놓여있으면서도 수지가 비폭력의 원칙을 고수해 나가는 꾸준함이야말로 간디(Mahatma Gandhi)나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의 경험에서 입증되었듯이 막강한 힘에 대항하는 방안으로서 현실적으로 유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을 지속적이면서 통합적인 운동”(Win 1992:143)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웅산수지의 강인함은 미얀마정부가 수지에 대해 외국으로 출국하여 편안히 살기를 바라는 요청에 대해 끝까지 거부하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99년 3월에는 수지의 남편인 미카엘 아리스(Michael Aris)가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 수지를 만나기 위해 미얀마 입국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만다. 이 때에 수지는 미얀마로의 귀국을 금지 당할까 두려워서 끝내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강인함을 보였다(*The Economist*, April 3rd 1999:11).

또 하나 이웅산수지의 강인함과 용기가 특히 돋보이는 부분은 1990년 이후 10여 년 간 한 톨의 양보 없이 일관되게 반정부 입장을 견지해 오는 불굴의 정신력에 있다. 일부 현실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수지의 완고한 반정부 자세는 때때로 “변화를 위한 실용주의적인 전략이 부재”(FEER, 3 August 2000)한 것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그래서 미얀마의 현 정치상황에서 극적인 변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그리고 1990년의 선거도 10여 년이 지나는 가운데 그 실효성이 잊혀져 가는 냉엄한 현실⁶⁾에서 위로부터의 군부에 의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수지의 양보를 기대하는 현실적 타협안이 유엔과 세계은행 등에 의해 모색되기도 했다.⁷⁾ 그러나 이웅산수지가 이러한 현실정치적 시각에서의 타협적

6) 1990년 선거에서 선출된 485명의 당선자 가운데 사망 27명, 사임 91명, 자격박탈 99명, 해외도피 72명으로 인해 1999년 5월 현재 196명—이 가운데 NLD 당원은 136명임—만이 실효성이 있는 당선자로 남아 있다(EIU 3rd quarter 1999:12).

7) 대표적으로 1998년 11월 유엔은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해 이웅산수지와 대화와 정치범 석방 등 정치적 변화를 개시하면 1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이를 두고 ‘민주화를 위한 달러 프로젝트’라고 지칭되기도 한다—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수지가 1990년 선거결과에

요구와 기대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1990년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으로서의 국민민주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의 정당한 권력인수권⁸⁾을 강조하고 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수지의 남다른 강인함에서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아웅산수지가 가택연금이라는 채찍, 해외망명이라는 당근, 그리고 군사정부에 대한 타협적 변신을 은근히 요구하는 현실정치적 압박 등 지난 10여 년간 제기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남다른 강인함과 용기를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수지의 독특한 사명감에서 비롯된다. 수지는 미얀마 전국 영웅으로 신화화되어 있는 아웅산의 딸로서 부친의 암살로 인해 못다 이룬 미얀마의 또 한번의 건국을 달성해 나가야 할 순교자적인 사명감을 보유하게 된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하여 바라 본 조국이 독립 이후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상태나 별 차이가 없는 군부통치하의 가난과 억압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목격하게 되면서 수지의 분노와 그로부터 분출되는 사명감은 더욱 강렬하게 작용하게 된다. 특히 귀국 후 수지에 눈에 비친 그리고 수지가 미얀마에서 거주하면서 경험하게 된 미얀마의 공포 상황은 군부통치자뿐만 아니라 미얀마 국민들 모두를 타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악 상태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수지는 스스로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단호함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띠게 된다.

미얀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아웅산수지의 사명감은 자신이 아웅산의 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미얀마의 공포 상태에 대한 인식과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으로서 미얀마 국민

대한 고집을 철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사타진을 한 바 있다(EIU 1st Quarter 1999, 11-12; Seekins 1999: 18-19).

8) 대표적으로 아웅산수지는 1998년 9월 1990년 총선에서 선출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인민의회대표위원회'(Committee Representing the People's Parliament) 구성하고 그 산하에 10개의 '의회위원회' 설치하는 등 NLD의 정당한 권력인수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EIU 1st quarter 1999: 15).

들의 지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연원한다. 다시 말해서 수지가 군부통치의 회유나 협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강경하게 민주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데에는 1990년 선거에서 열악한 선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끄는 NLD에 대해 보여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한 몫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수지는 1990년 선거에서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총선결과를 무효화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폭력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인해 더 더욱 미얀마 군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비폭력 강경노선을 취하게 된다.

III. 아웅산수지의 미얀마 상황 인식과 진단

40여 년 동안 주로 영국과 인도 등 외국에서 지내다가 1988년 4월 어머니의 병을 간호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아웅산수지에게 있어 조국 미얀마의 모습은 암울한 것이었다. 26년에 걸친 내전의 장기군부통치 결과 미얀마는 “비극, 공포, 분노, 그리고 절망적인 불신이 소용돌이치고 있는”(아웅산수지 1996:259)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 동안 미얀마의 정치와는 거리를 두어 왔던 수지가 1988년 귀국했을 때 비쳐진 미얀마의 “현재의 위기는 나라 전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그 아버지의 딸로서 현재와 같은 상황을 모른 척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아웅산수지 1996:248). 그래서 수지는 이러한 위기로부터 미얀마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가독립을 위한 제2차 투쟁”(아웅산수지 1996:248)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⁹⁾

아웅산수지가 1988년 이후 미얀마에서 보고 듣는 군사정부의 폐약과 허위

9) 첫 번째의 독립운동이 영국에 대항하는 반식민주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면, 자유를 향한 두 번째의 투쟁은 반군부통치의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는 “비능률적이고 부패한 데다 권력이 악용되고 있는 엉망진창의”(아웅산수지 1996:276) 비민주적 정부의 전형이었다. 미얀마 정치현실은 1990년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통치의 비정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군부통치의 비정상 상황에서 미얀마 국민들은 전체주의정부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얼굴도 없고 지성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집단”(아웅산수지 1996:220)으로 전락하여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말 것 이라는 것이 아웅산수지의 진단이다. 그래서 미얀마 국민들이 군사정부의 교체를 요구하고 자유를 향한 민주화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붓다의 경지에도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수지에게 있어 민주화운동은 “삶의 권리를 박탈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부여해 주지 않는 전체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운동이며,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추동력은 미얀마 국민들이 “타락과 공포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생활방식이 손상되어 버렸다고 하는 굴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아웅산수지 1996:228). 이렇게 하여 수지에게 있어 불교의 가르침과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아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그리고 “도덕적 목적성”(번즈 2000, 745)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을 통해 상호 연결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미얀마 정치현실에 대한 아웅산수지의 진단은 한마디로 미얀마가 “공포로 덮여 있다”(blanket of fears)(EIU 3rd quarter 1999, 7)는 것으로 요약된다. 실제로 반정부집단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뿐만 아니라 뉴스 미디어와 정보에 대한 엄격한 통제¹⁰⁾로 인해 외부세계와 단절됨으로 해서 미얀마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군부정권에 의해 세뇌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10) 미얀마의 공포정치의 대표적 포고령 가운데 1)1996년 6월에 공포된 국내법 5/96은 공개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사람은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 국영매스터 4그룹 2000:102) 2)1996년 7월과 9월에 각각 공포된 <TV와비디오법령>과 <컴퓨터과학발전법>은 TV와 비디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등록과 검열을 강제하고 있다 (Steinberg 1998:193).

“심리적으로 마비상태에 놓여”(Matthews 2001:229)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억압과 고립 상황에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공포”(아웅산수지 1996:227)인 것으로 생각하는 수지에게 있어 미얀마 민주화의 제일차적 과제는 바로 이러한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특히 수지에게 있어 공포는 “권력 상실에 대한 공포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를 타락시키고 권력의 채찍에 대한 공포가 권력에 예속된 자를 타락시키는”(아웅산수지 1996:227) 이중의 해악을 갖는다. 그래서 “민주제도에 입각하여 권력이 행사되는 국가를 이룩하려는 국민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무기력과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며, 그러한 한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아웅산수지 1996:231).

IV.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의 자원과 기반

아웅산수지와 같이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선도해 가는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며, 리더에 대한 추종자들의 '자발적 추종' (백기복 2000:38)을 전제로 한다. 미얀마 국민들의 자발적인 추종이라는 측면에서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몇 번의 계기를 통해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첫째,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은 1988년 예상치 않았던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운동이 극적으로 분출하는 가운데 부너지간로 이어지는 근친승계적 계기를 통해서 주어진다.¹¹⁾ 즉 1988년 민주화운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와중에서 미얀마 독립영웅인 부친 아웅산의 후광을 입고 민주화운동

11) 정치적 리더십이 부분적으로 근친상속적 계기를 통해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웅산수지 말고도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수카르노 대통령의 딸), 필리핀의 코라손 아끼노(상원의원 아끼노의 처), 한국의 박근혜(박정희 대통령의 딸) 등을 들 수 있다.

의 구심점으로 나서게 된다.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은 수지가 1988년 민주항쟁 시 민주화운동의 기수로서 급부상해 나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1988년 당시 야당지도자로서 재등장한 세 사람 모두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기대에 못 미치는 제약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우누(U Nu) 전총리는 나이가 81세의 고령이었고 아웅지(Aung Gyi)나 틴우(Tin Oo)는 군 출신으로서 한때 내원 정권에서 제2인자였거나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경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수지의 정치적 신선함이 크게 돋보일 수 있었다(Fredholm 1993:63).

둘째,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은 1990년 5월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획득한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5월 총선에서 수지가 이끄는 NLD가 총 485석 가운데 392석이라는 예상외의 압승을 거둠으로써 수지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지지가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게 된다.¹²⁾ 5월 총선을 거치면서 명실상부하게 군부통치에 대한 정치적 대안으로 등장한 수지의 정치적 위상과 비중이 어떠한가는 역설적으로 수지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과민반응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미얀마 군부가 마련하고 있는 신헌법 초안에 미래의 대통령 자격을 20년 이상 계속하여 미얀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제한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출마할 자격이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지의 정치적 입성을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군사정부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5월 총선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확보하게 된 수지의 정치적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미얀마 군사정부가 수지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들만의 의도에 맞게 정치일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이는 신헌법제정 등 일련의 정

12) 1990년 선거에서 군인 가족들의 집단거주지인 양곤의 밉갈라돈(Mingaladon)이나 다곤(Dagon)에서도 아웅산수지에 대한 지지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내원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Win 1992, 100)일 뿐만 아니라 이는 1990년 선거가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을 가진 선거(Win 1992:170)임을 보여주고 있다.

치일정의 추진과 제도화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셋째, 미얀마의 경우처럼 정상적인 정치사회의 작동이 허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정치지도자로서 이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은 1988년 이후 분출된 미얀마 국민들의 요구와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는 상징성으로부터 나온다. 수지가 1989년 이후 사실상 줄 곧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곧 미얀마 국민들과 전세계 사람들에게 미얀마 군부통치의 자의적인 억압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동일시되면서, 수지는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Nation, 14 October 1991)과 같은 희망이 되고 있다. 또한 수지가 줄 곧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는 데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동정심은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민주화 운동의 기수로서의 수지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뒷받침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로써 수지는 미얀마 국민들의 집단정서를 생생하게 구현함으로써 상호적이고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이들의 열망을 대변해주는 ‘변혁적 리더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¹³⁾

넷째, 이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은 1990년대 미얀마 군부통치의 실패와 그로 인한 미얀마 국민들의 거부감으로부터 주어지는 측면이 크다. 지난 1990년대 10년 간을 돌아볼 때 미얀마 군부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적어도 1990년대 전반기에는 경제자유화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유입과 농산물 생산 증대로 인해 “1993/4년 7.5%, 1994/5년 6.9%, 1995/6년 6.4%”(Clark 1999:774의 표1)의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권위주의의 기능적 효용성을 주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¹⁴⁾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제경제와 인프라의 결핍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외국인투자와 관광수입 모두에서 타격을 입기 시작하여 “1996/7년 4.0%, 1997/8년 4.6%”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6/7

13) 번즈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에서 지도자와 추종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동기과 도덕성을 제시시키는 방식으로 … 공통의 목적성취를 위한 상호지지로 연결”(번즈 2000:54)되는 데,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의 가장 현대적인 예로서 간디를 들고 있다.

14) 그러나 1992년 이래 6-7%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1997년 현재 미얀마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에 못 미치고 있다(The Economist, July 16th 1997:27).

년 11억 4,200만 달러, 1997/8년 11억 8,500만 달러”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무역적자와 “1996/7년 6억 7,800만 달러, 1997/8년 8억 1,500만 달러”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상수지 적자에 놓여 있다(Clark 1999:774의 표1). 2002년 5월 *TIME*은 미안마가 “50-7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달러당 1,000샷트나 되는 물가상승”(Time, May 13, 2002:13)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제기되는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아 경제침체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1990년대 미안마 국민들의 삶의 질은 세계은행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비상사태’(silent emergency)라고 지칭될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균수명 68세와 비교할 때 미안마는 60세, 1천명 당 유아사망율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34명과 비교할 때 7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Wingfield 2000:208) 이에 따라 미안마 군부 내에서도 향후 미안마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군부 통치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EIU May 2001:13). 이렇듯 2000년대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은 군부통치의 실패라는 회고적 평가를 통해 수지에 대한 미래전망적 기대를 갖게 되면서 더욱 광범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겠다.

다섯째,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목표와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미안마 국민들과 수지간에 지속적인 연계와 기대교환을 이루고 있다는 데에 그 특성이 있다. 즉, 1988년 이후 미안마 국민들의 요구는 크게 경제성장,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3가지 과제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차원의 목표이면서도 동시에 상호 연관되어 있는 3가지 과제를 수지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그것이다.

미안마의 3대 국가과제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은 불가피하게 군부통치의 개발독재 논리와 대결하게 된다. 미안마 군부는 1988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총으로 권력을 고수하여 나가는 정당화 논리는 현 시점에서 미안마는 자유 보다 빵이 더

시급하며, 그래서 군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규율 민주주의'¹⁵⁾가 요청된다는 데에 두고 있다. 이러한 규율민주주의는 군부가 미안마의 독특한 상황에서 질서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할 사명을 맡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수호자주의'¹⁶⁾의 정당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웅산수지는 덴마크 기자 플레밍 이첸(Flemming Ytze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억압받고 불안에 처해 있는 국민보다는 자유롭고 안전한 국민이 경제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Lintner 1998b:22)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와 안전을 강조하는 수지의 입장은 민주주의가 자유의 최대한 실현, 인간 자질의 발달, 개인적 이익의 보호라는 3가지 측면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이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도 군부통치 보다 민주정치가 더 유용하다는 일반적인 견해의 연장선상에서 놓여 있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지난 10여년 동안 미안마의 경제성장에 관한 두 가지의 해법과 정당화 논쟁이 팽팽하게 맞서 왔고, 2002년 현 시점에서도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이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과 다른 한편으로는 다분히 위계질서제의 동원체제에 강조를 두고 있는 미안마 군부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간에 팽팽한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¹⁷⁾

15) 미안마 군사정부는 스스로를 "일당사회주의체제로부터 다당제 규율민주주의(discipline democracy)로의 이행을 감독하는 임시정부"(EIU 2nd quarter 1999:10)라고 칭하고 있다.

16)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자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수호자주의를 통치에 적합한 지혜와 덕성을 지닌 소수 그룹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이론적으로 수호자주의를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달 1999:112-165).

17) 이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과 군부통치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1)국민의, 2)국민에 의한, 3)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군부의, 군부에 의한, 군부를 위한 정부를 강제하고 있는 군부통치와는 달리 이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은 국민의, 민주적 과정으로부터 제기되는 제약과 통제를 받는 이웅산수지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지향한다고 볼 것이다.

V.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의 전략: 선거조성과 자원동원

1. 개방유도와 선거조성 전략

지난 90년대 아웅산수지의 리더십 특성을 사명감과 강인함에 기반을 둔 용기모델이라고 한다면, 이제 2000년대 아웅산수지의 민주화리더십은 어떻게 하면 대치 국면을 선거 국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미안마의 정치·사회적 개방을 이끌어 내오느냐 하는 리더십 특성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수지는 장기간에 걸친 억압 하에서도 강인하게 비폭력 저항운동의 끈을 늦추고 있지 않은 미안마 미래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래서 수지가 미안마의 미래를 담보할 기대주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수지는 지난 10여 년 간의 경험과 위상을 토대로 하여 새로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1988년을 전후한 시기의 미안마 민주화 운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종의 기대-좌절의 산물이다. 데이비스의 지적처럼 “사회경제적 발전의 실제 상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진보가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기대, 그리고 지금은 막혀버린 그 기대가 더 중요한 문제로 작용”(데이비스 1984:63)하였던 미안마의 암담한 현실 상황에서 1988년 민주항쟁이 폭발한 것이었다. “1988년 3월의 경우 쌀의 암시장가격이 정부의 쌀 배급가격 보다 700%나 넘게 치솟는”(Maung 1990:615) 경제파탄과 1997년 12월 미안마에 대한 유엔의 최빈국 결정 소식은 미안마 국민들의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힘으로써 루시안 파이(Lucian Pye)가 얘기하는 “실패의 충격”(Pye 1990:15)으로 작용하면서 네윈정부의 정당성을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 아웅산수지의 민주화리더십이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지지기반을 넓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네윈정부의 실패에 따른 정당성 상실로 인해 반대급부적으로 주어진 측면이 큰 것이었다.

이에 반해 최소한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까지를 보면 미안마 군사정

부는 정치적 정당성은 결여하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6 - 9.8%의 높은 GDP 성장률” (한국앤베스티 4그룹 2000:178)을 보였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로는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그래도 미안마 군사정부는 부분적인 대외경제개방, 아세안과의 가입,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유대, 상당수의 반정부 소수종족집단과의 화해 등을 통해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럭 저럭 꾸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미안마 군사정부가 결정적인 실정을 노정하지 않은 한 그리고 미안마 군사정부가 ‘제도로서의 군부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장해 줌으로써 군부의 단합을 이루어 나가고¹⁸⁾ 또 2002년 현재 1,6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연방단결발전협회(Union Solidarity Development Association: USDA)와 같은 친정부 자매집단을 통해서 강고한 동원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한, 이웅산수지는 민주화운동 투사로서의 단호함 못지 않게 야당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변신과 전략을 보여줄 것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제 21세기 이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은 어떻게 해서든 미안마에 다시 선거 국면을 조성하는 데로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¹⁹⁾ 이 점에 관한 한 수지는 “필요하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관한 것만은 제외하고 모든 현안들에서 양보” (헌팅톤 1992:226)할 필요가 있다는 헌팅톤의 지침에 기울일 필요가 있다. 1990년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과거에 집착해서는 21세기 미안마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의 군부의 몫과 같은 비민주적인 군부의 기득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웅산수지의 NLD가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18) ‘제도로서의 군부’의 이익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는 한, 군부내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체제를 뒤흔들도록 할 정도로 표면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소장 장교들이 오히려 더 경직되고 완고한 자세를 취해 나가기도 한다(Matthews 2001:231-232).

19) 미안마의 선거와 관련하여 미국은 1900년 선거의 존중을 더 중점을 두는가 하면 EU는 새로운 선거의 시행을 더 선호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Steinberg 1998:186).

어떻게든 미얀마의 지리한 내치국면을 선거 국면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선거 국면은 정치·사회적으로 개방의 활동공간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유동적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며, 또 선거는 다음의 선거를 기약해 주고 의회라는 제도권 정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은 선거 국면의 조성을 통해 긴 호흡으로, 우회하면서, 점진적으로, 군부통치와 함께, 그러면서도 변화의 가능성과 영역을 넓혀 나가는 구체적인 성과를 취하는 실용적인 움직임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한 21세기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춰 미얀마의 개방과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과 처방이 요청된다. 인터넷 시대에 발맞춰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활발한 의사소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시도와 자세변화가 요구된다. 물론 미얀마처럼 야당지도자의 정치적 활동이 여의치 않고 또 언론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경우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면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광·교류의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러한 투자와 교류는 불가피하게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고, 이러한 발전은 장기적으로 정보에 대한 지금까지의 군사정부의 독점과 통제를 무너뜨리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함께 정치참여의 통로를 가져다 주리라는 점에 유의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아웅산수지는 미얀마에 대한 외부의 지원이나 투자는 물론이고 미얀마에로의 관광까지도 군부정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반대해 왔던 기존의 자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얀마에 대한 투자와 관광·교류가 단기적으로도 양적인 측면에서 미얀마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여지가 크며, 장기적으로는 미얀마 시민사회의 성장에 도움을 줌으로써 민주화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웅산수지는 미얀마 국민들이나 국제적 연대집단과의 의사소통에만 치우치지 말고 군사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상호작용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다양한 형태의 접촉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군사정부와의 접촉과 대화를 통해 수지는 상호의존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미안따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조리있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미안따 정국의 미래를 위해서 신헌법 제정을 위한 대화채널을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신헌법 제정의 정당성은 NLD 뿐만 아니라 소수중족집단의 광범한 의견수렴과 자발적인 동조에 기반하여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양한 의사소통 통로를 통해서 미안따 군부통치의 개발독재에 내재하여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왜 민주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수지의 강조는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란 단순한 경제성장 이상의 것이라는 논리로부터 나온다. 물론 배가 불러야 윤리와 도덕 내지는 인간성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얘기되며, 이러한 군부통치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지에게 있어서는 미안따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존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민들 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가 요청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주의 → 신뢰회복 →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담론을 일반 국민들과는 물론이고 군사정부와도 함께 논의하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장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정부와의 대화 통로를 확대할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백가쟁명의 논의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장으로서 선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 점에서 1998년 7월 군사정부와 NLD간의 대화 시도가 이웅산수지의 포함 문제로 진전이 되지 않았던 경험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가 NLD가 1999년 6월 수지가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서라도 대화를 갖자고 제안한 것은 그만큼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라고 보여진다.

2. 자원동원 전략

1) 시민사회내 정치세력과의 연계

미얀마 시민사회 내에서 농민이나 노동자 또는 기업가나 전문가집단이 미얀마 민주화를 추동해 낼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미얀마의 민주화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 1962년 네윈의 쿠데타 이후 40년 간 군부관료가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미얀마의 사기업과 전문가 영역의 성장은 봉쇄되었고 대다수 농민과 노동자들은 강고한 정부통제 하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1988년 미얀마 민주항쟁 시에도 그 일차적인 추동력은 학생집단으로부터 왔고, 그에 수반하여 승려집단이나 전문가집단의 부분적인 동조가 이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향후 아웅산수지가 미얀마 민주화를 추동해 나갈에 있어 시민사회로부터의 지원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학생집단과 승려집단 그리고 미얀마 특유의 반정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소수종족집단으로부터 주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학생집단은 그 조직구성의 특성상 한시적이고 물질적 동원재원이 빈약하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을 추동해 가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학생집단은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희생정신을 갖고 정열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학생집단의 민주화운동은 졸업 후에도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세력을 사회에 배출한다는 데에 그 기여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저발전되어 있는 미얀마의 경우 학생집단은 1988년 민주화항쟁의 주역을 담당했다는 역사적 기억과 그 때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활력 있는 민주화운동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²⁰⁾ 학생집단의 이러한 잠재적 폭발력을 우려하여 미얀마 정부는 1990

20) 1988년 이후 대표적인 학생시위로는 1996년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2,000명의 학생들이 학생회조직 결성과 구속학생 석방을 요구하면서 벌인 시위와 1998년 9월 1,000명의 학생들의 시위를 들 수 있다. (『중앙일보』, 1996년 12월 10일, 10면; 『문화일보』, 1996년 12월 11일, 8면; Seekins 1999:15)

년대 내내 대학의 문을 닫는 것으로 학생집단의 반정부 운동을 차단해 왔고,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학교폐쇄 조치로 인해 반정부 학생들간에 연계와 조직화된 시위가 불가능하자 학생들은 '비밀과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치고 달아나기' 식의 시위를 통해 반정부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 있다. (Lintner 1998a:22)

2000년대 들어서는 대부분 대학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학생집단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대학에 대한 군부의 통제가 워낙 완강하여 1988년과 같은 학생들의 대대적인 시위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EIU 1st quarter 2000, 8). 여기서 문제는 학생집단이 이웅산수지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생집단과 수지간의 공식적인 제휴가 오히려 수지에게는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때문에 그동안 학생집단과 수지의 관계는 상호 묵시적인 이해와 지지에 머물러 왔지만, 향후 이러한 묵시적 동조를 어떻게 공식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심사숙고와 전략이 요청되는데,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일정한 양보를 통해서라도 제도권 정치에서의 선거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미안마 승려집단의 경우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전체적으로는 군부와 승려집단간의 후원-의존관계를 통해 안정된 동반자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마 불교의 교리가 상호계서적이고 숙명적인 측면에서의 현실수용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정치적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물론 소장 승려집단(All-Burma Young Monks' Union)인 경우는 1998년 11월 23일 만달레이에서 약 300명의 승려가 구속승려의 석방과 군부통치 철폐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간헐적이거나 반정부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EIU 1st Quarter 1999, 16). 그러나 예를 들면 2000년 1월 1,000명의 스님을 대표하여 만달레이의 한 윈로스님(Sayadaw Ashin Kondara Biwuntha)이 이웅산수지와 군부 모두에게 '과거를 잊고 경제재건에 협력을 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에서 보듯이(EIU 1st quarter 2000:16), 많은 경우는 군부와 수지간의 대화촉구 수준에 머무는 정치적 움직임

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미얀마의 시민사회 내에서 원로스님의 권위가 높기 때문에 이들 승려집단이 군부와 수지에게 화해와 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보일 경우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로서는 미얀마의 승려집단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군부가 외부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승려집단의 정치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방향에서 정치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수종족집단의 경우는 미얀마 군부통치의 제거보다는 자신들 소수종족집단의 자율성과 경제적 이해관계의 확보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래서 군부통치의 제거라는 민주화 요구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한에서 요구되는 이차적인 과제라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소수종족집단들은 민주화가 자신들의 자율성 확보에 얼마나 도움되는가 라는 실용적인 계산으로 접근하는 한,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요구에 대해 언술상의 지지를 표하고는 있지만 이들간에 “직접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EIU 2001:11). 그러나 민주주의의 한 요소가 소수자 권리의 존중에 두고 있는 것인 한, 소수종족집단의 민주화 요구와 수지의 민주화 요구간에 지속적이고도 호혜적인 연계가능 영역은 그만큼 넓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가능성은 향후의 선거 공간이 마련된다면 수지의 자원동원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역할 영역이 그만큼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소수종족 문제가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이 중첩되어 있는 미얀마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한다면, 아웅산수지로서는 향후 버마족 중심의 중앙정치의 틀 내에 이들 소수종족집단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의 이익을 고려에 넣는 시스템의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지는 2002년 현재 소수종족집단들이 수지와 미얀마 군사정부간의 대화 진전에 대해 그들 나름의 우려와 불신을 표하고 있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2001-02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수지와 미얀마군사정부간의 대화에 소수종족집단의 대표가 배제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급기야 이들 소

수종족집단들은 2001년 9월 양곤정부와 휴전협정을 체결했는지에 관계없이 이웅산수지-군부-소수종족집단간의 3자회담을 요구하는 민족화해협력위원회(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Committee: NSCC)를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EIU November 2001:16). 이렇게 수지는 민주화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소수종족집단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보해 주면서 버마족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 미안마 군부와와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이중의 어려운 과제를 떠맡고 있다고 볼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난 1990년대 10년 동안 미안마 시민사회의 3대 정치세력인 학생집단, 승려집단, 소수종족집단간에 미안마의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접촉이나 제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장 큰 이유가 미안마 군부통치의 탄압과 통제 때문이지만, 그 외에도 이들 집단들 모두가 각기 독자적인 자신들의 영역과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안마 군부통치에 대한 관계에서 상이한 입장과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시기에 이웅산수지가 미안마 민주화운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이들 3개 집단을 아우르는 어떤 무지개연합이나 전국적인 연계망을 확보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 정치세력들 각각이 자기들 방식으로 제기하는 반정부 비판과 민주화 요구가 어떤 우연적 계기와 맥락에서 하나로 모아질 때, 특히 어떤 형태로든 선거의 장이 마련된다면, 그 때 비로소 반군부의 정치적 대안으로서 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의 통합적 동원 역할이 기대되고 요청되리라 본다.

2) 군사정권과의 대화

제3세계 군부통치의 일반적 경험에서 보듯이 미안마 군사정부도 자발적으로 '위로부터의 민주화'를 추진해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미안마 군부가 계속 평의회와 포고령을 통해 통치하는 것은 제도적 불안정과 함께 국제적인 냉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군부통치의 제도화 내지는 정당화를 위해서 일정한 한계 내에서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자유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정권이양이라는 미얀마 군부통치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의이지만, 군부 내에서도 예를 들면 킨능(Khin Nyunt)을 중심으로 하는 개방적 집단²¹⁾은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한 국내적-국제적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모종의 개방 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외자들은 이들 군부내 개방적 집단의 위상 강화가 예를 들면 미디어에 대한 검열의 완화라든가 NLD 등 야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부분적인 용인, 정치범의 석방, 인신보호영장 청구와 같은 개인의 법적 보호 장치의 부여 등을 통해 미얀마 군부통치를 다소나마 해빙시켜 나갈 가능성은 없는 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의 확인으로서 군부내 개방적 집단과 아웅산수지간의 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웅산수지는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미얀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군사정부와의 대화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즉, “대화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게 아니다.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최선의 문제해결 방식을 찾는 과정이다”(Silverstein 1996:227에서 재인용). 1998년 2월 방콕의 *Nation*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지는 군부와의 대화에서 “모든 대안이 열려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수지에게 있어 여야간 대화의 필요성은 미얀마 국민들뿐만 아니라 군사정부 모두 정치권력을 둘러싼 제로섬적인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요청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미얀마 군부집단이 자신감 상실에 따른 포위의식으로 인해 수지와의 대화를 배제하려는 데서 벗어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로 나아가는 방향전환이 요청되는데, 이러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과 전략은 무엇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은 미얀마의 협애한 정치 사회 지형 내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정치적 개방에 대한

21)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킨능의 개방적 집단은 예를 들면 아웅산수지와의 관계에서 마웅아예(Maung Aye)로 대표되는 미얀마 군부내 보수적 집단과 달리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들 모두 미얀마 군부의 기득권 고수라는 점에서는 단합과 일치를 보여 왔다.

군부의 우려를 씻어줄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1990년대 경험에서 보듯이 팽팽한 대치와 선명성 고집은 정치사회의 개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다른 제3세계의 민주화 경험을 볼 때 정치적 개방이 군부의 기득권 축소 내지는 상실을 가져올 것이고 많은 경우 과거의 인권탄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미얀마 군부의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9년 4월 NLD는 1988년 학살과 관련하여 관련자에 대해 전면적인 사면을 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한 바도 있지만(Wingfield 2000:206), 덧붙여 수지는 미얀마 제도권정치에 군부의 이익을 순조롭게 보장하는 길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아웅산수지와 함께 할 때 있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웅산수지는 자신이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군부의 정치개입을 부정하는 데 있기보다는 군부의 기득권 존중 내지는 군부와의 권력공유에 있음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Steinberg 1998:194). 이러한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는 수지 또는 NLD와 군부간의 만남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미얀마 정국의 해빙 가능성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의 초점은 수지와 군부간의 대화 여부와 그 대화의 내용으로 모아지고 있다.

아쉽게도 1988년 이후 지금까지 아웅산수지와 군부통치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불신과 대치로 점철되어 있다. 이러한 상호불신의 한 축은 수지의 정치적 폭발력에 대한 군부통치의 자신감 결여와 포위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다른 한 축은 1990년 5월 선거 결과가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데 대한 수지의 대군부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다. 1994년 이후 수지와 미얀마 군사정부간에 간헐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서로간의 입장이 조정되기는커녕 이러한 대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는 미얀마정부의 이중책략적 입장 때문에 수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해 더욱 강경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다가 2000년 11월과 2001년 초에 걸쳐 미얀마 군사정부의 실세인 킵장군과 수지간에 상호신뢰 회복을 위한 만남과 대화가 재개되었다.²²¹ 물론 2002년 현재

미얀마 군사정부와 수지간의 신뢰회복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2000-01년 회담 이후 2002년 5월 수지에 대한 실제적인 가택연금 해제와 함께 2002년 7월까지 NLD 당선자 54명을 포함하여 NLD 당원 283명이 석방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유화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EIU August 2002:13).

3) 국제적 압력의 연결고리로서의 아웅산수지

장기간에 걸친 미얀마 군부통치의 억압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압력은 주로 미국과 EU, UN, ILO 등 주로 서방권과 국제기구로부터 온다.²²⁾ 1988년 이래 미얀마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 압력은 미얀마에서 자행되는 강제노동과 소수종족에 대한 가혹행위 등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동시에 많은 경우 아웅산수지와 연계 내지는 지지라는 형태를 띠면서 정치적 민주화로 귀착되고 있다. 즉, 수지의 가택연금 해제와 정치범석방 그리고 1990년 선거결과에 대한 존중과 수지-군부간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수지를 연결고리로 하여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 EU 등 서방권의 압력이 실효가 크지 않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미얀마가 중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국가들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여 가까스로 버텨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군부통치가 1988년 이후 10여 년이 넘게 헌법과 의회는 물론이고 공식적인 국가수반마저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포고령에 의한 비정상적인 정치가 지속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설명될 수 있다.

22) 2000년대 대화와 관련하여 유엔의 미얀마 특사인 라잘리 이즈마일(Razali Ismail)가 임시정부 수립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수지와 미얀마 군사정부간에 모종의 대타협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낳기도 했다(EIU August 2001:7).

23) 미국이나 EU 등 서방권의 경제제재 노선과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들의 '건설적 개입' 노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서방권의 일본, 인도, 한국 등의 "이중노선" (Pilger 1996:277; Guyot 1996:272)은 공식적으로는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미얀마와의 경제관계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미 세계경제가 WTO를 통해 단일의 세계자본주의체제로 재편되어 그로부터 연유하는 상호의존의 압박에서 그 어떤 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보면, 미안마에 대한 서방권의 경제제재와 국제여론의 압박²⁴⁾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시 못할 상당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안마가 대외경제개방과 접촉을 확대해 나갈 수록 그리고 IMF라든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로부터 경제차관을 도입해 나갈수록 그리고 이러한 차관도입의 필요가 클수록 미안마 군사정부는 일정부분 대외적 이미지 개선과 함께 국제적 압력을 마냥 무시하기가 어렵게 된다.²⁵⁾ 특히 국제사회가 경제적 지원과 교류의 조건을 이웅산수지와 대외화 및 인권문제의 개선에 두는 한, 향후 미안마 군사정부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어떻게든 보다 순응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예상된다.

어떻든 2000년대 들어 이웅산수지의 연금해제와 국제적 제재의 완화를 연동시키는 국제적 노력이 크게 돋보인다. 대표적으로 2001년 1월과 6월에는 유엔 특사인 라잘리가, 2001년 1월에는 EU의 대표가 그리고 2001년 4월에는 유엔의 미안마 인권보고자인 핀헤이로(Paulo Sergio Pinheiro)가 수지를 만났다(Lintner, 2001b:22). 이러한 만남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수지의 가택연금 해제가 가장 손쉽게 제기될 수 있는 의제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미안마 군부통치의 개방과 변화의 시작은 수지의 연금해제로부터 가능하다고 보는 서방권의 시각과 노력은 라잘리 특사가 7차례나 미안마를 오가며 중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일련의 접촉과 대화는

24) 국제여론의 압박을 가하면서 미안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미안마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대표적 라디오로는 영국의 BBC, 미국의 RFA(Radio Free Asia)와 VOA(Voice of America)가 있고 인터넷 지원방송으로는 노르웨이의 DVB(Democratic Voice of Burma)와 호주의 RFA(Radio Free Asia)가 있다.

25) 1998년 세계은행이 미안마에 대해 10억 달러의 차관 제공을 대가로 몇가지 국내개혁을 요구했을 때 미안마는 이를 거부한 바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조건부의 지원을 미안마 정부가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2년 5월 6일 수지가 다시 연금에서 해제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것이다(『조선일보』, 2002년 5월 7일:12).

이렇게 볼 때 미얀마 군사정부의 지속적인 탄압 속에서도 아웅산수지가 지속적으로 민주화운동을 고수해 나갈 수 있는 추동력 내지는 대정부 협상력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이와 같은 국제적 지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보아 무방하다. 실제로 미얀마 군사정부가 수지와와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강-온의 반복을 취하게 되는 배경을 보면 미얀마에 대한 미국, EU, 일본 등의 경제제재 내지는 외교적 압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역으로 만약 미얀마의 군사정부에 대한 국제적 압박 내지는 경제제재가 약화된다면 그만큼 수지의 대정부 협상력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²⁶⁾ 결국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화라는 과제가 국제적 관심과 연대 그리고 압박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는 매개이자 연결고리로서의 수지의 상징성과 위상은 1988년 이후 조금도 변함 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것이며, 그래서 수지는 여전히 미얀마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이나 EU 등 서방권과 유엔 등 국제기구의 구체적인 압력 이외에도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관심은 1991년 10월 14일 아웅산수지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⁷⁾ 노르웨이 노벨평화상위원회가 수지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게 된 의도는 민주화와 인권을 지향한 수지의 비폭력주의 투쟁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를 격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며,²⁸⁾ 그러한 한 노벨평화상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

26) 이러한 국제적 압력에 대해 미얀마 군사정부는 그것이 오히려 내부강화를 가져올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경제제재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EU May 2001:13).

27) 노벨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상이 국제적 권위를 갖게 된 이유는 "파격적인 상금 액수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국제적인 상이라는 점, 인종과 국적을 무시한다는 점, 수상 후보자 및 수상자의 선정 방법이 매우 조직적·객관적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는 점"(박대일 2000:5)에 있다.

28) 노벨평화상은 "(아웅산수지)의 굴함이 없는 노력에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평화적인 수단으로 의해 민주화와 인권향상과 민족화해를 쟁취하려고 싸우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사람들

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제적 압력의 하나로서 이웅산수지의 노벨평화상 수상²⁹⁾이 또 하나 미얀마의 민주화에 기여하게 된 의도치 않은 측면은 그것이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있는 수지를 통해 미얀마의 억압적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환기시켜 주었다는 점이다(Win 1992:7). 물론 그 이전에도 1990년 12월과 1991년 9월 두 번에 걸쳐 수지의 연금해제를 촉구하는 켈라르 유엔사무총장의 공식 언명이 있었지만, 노벨평화상 수상은 이어 1991년 11월 유엔총회로 하여금 수지의 가택연금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도록 하는 도의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³⁰⁾ 노벨평화상의 국제적 권위와 호소력에 발맞춰 1993년 12월 20일 유엔총회는 재차 미얀마에 대해 수지를 포함한 다른 정치범들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함께 “1990년의 민주적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의에 따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5:96에서 재인용)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된다. 이렇게 수지는 미얀마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기대하는 국제적 관심과 압력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더 더욱 수지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국내의 민주화 세력과 연결시켜 나가는 전략과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내정간섭으로 몰아 부치면서 수지를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비난하는 군사정부의 악선전³¹⁾에 대응하여 수지는 국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장의 마련과 함께 국제적 지원을 미얀마 군사정부의 필

에게 그녀의 수상이 하나의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이웅산수지 1996:19)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29) 노벨평화상 이외에도 이웅산수지는 1990년 사하로프 인권상, 1992년 국제인권법률상과 유네스코의 시론 보리발상, 1995년 네루국제이해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때 마다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이웅산수지의 비폭력적 반군부 저항운동은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30) 유엔총회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한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에 이어 이웅산수지가 두 번째이다.

31) 이웅산수지에 대한 미얀마 군사정부의 악선전은 1988-9년 당시에는 이웅산수지가 공산

요와 상호 연계시키는 구체적 협상안 제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VI. 요약 및 결론

미얀마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의 특성과 기만 그리고 가능성을 위한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논문은 아웅산수지의 민주화리더십의 특성을 용기모델로 설정하여 1990년대 10여 년에 걸친 장기간의 가택연금이라는 채찍과 은근히 타협적 변신을 요구하는 현실정치적 압박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군부 통치에 대해 비폭력의 저항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는 수지의 강인함과 용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아웅산수지의 남다른 용기는 아웅산의 딸로서의 사명감, 미얀마 군부통치의 공포정치에 대한 반감, 수지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라는 3가지 요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아웅산수지의 리더십은 국민들의 자발적 추종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1)아웅산과 아웅산수지로 이어지는 부녀지간의 권위 승계, 2)1990년 5월 총선에서의 압승, 3)군부통치의 경제실패에 대한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수지의 부상, 4)억압받는 미얀마 국민들의 상징이자 기수로서의 위상, 5)민주화 → 신뢰회복 →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근대화 모델에서 수지가 차지하는 민주화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기대상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셋째, 향후 미얀마의 민주화를 추동해 나가는 현실적 전략이자 처방으로서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십은 군부정권과의 대화를 확대해 나가는 의사소통 전략과 국내·외의 민주화 자원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동원전략이 요청된

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되는 것으로 치부하다가 이후 미국 등 서방권의 압력이 시작되자 아웅산수지를 미국 CIA의 앞잡이로 모는 어처구니없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Win 1992:119-121).

다. 특히 야당지도자로서 이용산수지의 자원동원과 의사소통은 1)학생집단, 승려집단, 소수종족집단이라는 미안마 시민사회의 3대 세력으로부터의 지지와 연계를 공식화해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또 한 번의 선거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의 전략과 함께 2)민주주의에 대한 미안마 국민들의 선호와 기대대응을 도출하면서 동시에 어떻게든 군사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정치개방을 이루어 나가는 전략 그리고 3)미안마의 인권과 민주화에 관심을 갖는 국제적 지원과 압력을 어떻게 미안마의 국내정치적 개방과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의 전략이라는 3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을 요청받고 있다.

주제어 : 이용산수지, 민주화, 용기모델, 국민민주연합, 공포로부터의 자유, 정치리더십

참고문헌

달, 로버트 저, 조기제 옮김. 1999.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서울: 문학과 지성사.
 데이비스, J. C. 1984. "J곡선 혁명이론," 신용하 편, 『혁명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61-91.
 마사오, 가리마다 저, 조일현 역. 2000. 『조직의 리더십』. 서울: 자작.
 『문화일보』, 1996년 12월 11일, 8면.
 박대일. 2000.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들』. 서울: 제3공간.
 번즈, 제임스 M. 2000. 『리더십 강의』. 서울: 생각의 나무.
 백기복. 2000. 『이슈리더십』. 서울: 창민사.
 이용산수지 지음, 김종무 옮김. 1996. 『공포로부터의 자유』. 서울: 한국논단.
 『중앙일보』, 1996년 12월 10일, 10면
 『조선일보』, 2002년 5월 7일, 12면.

최재현. 2002. "미얀마 민주항쟁의 주역 이웅상 쭈찌." 2002년 6월 8일 부산외국어대 아시아지역연구소 주관 <아시아의 여성·사회구조·문화적 정체성>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논문.

한국앰네스티 4그룹. 2000. 『내릴 수 없는 것발, 미얀마』. 서울: 두리미디어.

헌팅톤, 사무엘 P. 1992. "권위주의체제의 유형과 민주화의 경로." 김웅진·박찬욱·신윤환 편역, 『비교정치론 강의2』. 서울: 한울. 171-232.

헌팅톤, 사무엘 P. 1995. "민주주의의 세 번째 물결." 임현진·송호근 공편,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서울: 사회비평사. 19-53.

Asian Bulletin, Vol.20, No.9, September 1995.

Clark, Allen L. "Myanmar's Present Development and Future Options.' *Asian Survey*. Vol.XXXIX, No.5, September/October.

The Economist. April 3rd 1999; July 16th 1997; Sept. 2-8, 2000.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01, *EIU Country Profile: Myanmar*.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Country Report: Myanmar*, August 2002, May 2001; August 2001; November 2001; 1st quarter 2000; 1st quarter 1999; 2nd quarter 1999; 3rd quarter 1999.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5. *Asia 1995 Yearbook*. Hong Kong: Review Publishing Company Ltd. 93-99.

Fredholm, Michael. 1993. *Burma: Ethnicity and Insurgency*.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Guyot, James F. 1996. "Myanmar: Several Endings, No Clear Beginnings." *Southeast Asian Affairs 1996*.

Lintner, Berril. 1998a. "Protest and Ru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tember 17), 22.

Lintner, Berril. 1998b. "Velvet Glove." *Far Eastern Economic Review*(May 7), 18-22. 122.

- Lintner, Berril. 2001. "A Ray of Hope." *Far Eastern Economic Review*(January 25)
- Lintner, Berril. 2001. "No News Is Bad News." *Far Eastern Economic Review*(August 2)
- Matthews, Bruce. 2001. "Myanmar: Beyond the Reach of International Relief?" *Southeast Asian Affairs*. 2001. 229-248.
- Maung, Mya. 1990. "The Burmese Road from the Union of Burma to Myanmar." *Asian Survey*. June. 602-624.
- Nation*. 14 October 1991; February 17, 1998.
- Pilger, John. 1996. "The Betrayal of Burma." *The World Today*. Vol.52, No.11, November. 277-279.
- Pye, Lucian W. 1990. "Political Science and the Crisis of Authoritarian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4, No.1, March.
- Seekins, Donald M. 1999. "Burma in 1998." *Asian Survey*. Vol.39, No.1, January/February.
- Silverstein, Josef. 1996. "The Idea of Freedom in Burma and the Political Thought of Daw Aung San Suu Kyi." *Pacific Affairs*. Vol.69, No.2, Summer. 211-228.
- Steinberg, I. David. 1998. "Myanmar: Regional Relationship and Internal Concerns." *Southeast Asian Affairs*. 1998. 179-195.
- Time* (May 13, 2002), 12-13.
- Tucker, Robert C. 1981. *Leadership As Politics*.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 Win, Kanbawza. 1992. *Daw Aung San Suu Kyi*. Kawasaki, Co.: Japan.
- Wingfield, Tom. 2000. "Myanmar: Political Stasis and a Precarious Economy." *Southeast Asian Affairs*. 2000. 203-218.

Abstract

Aung San Suu Kyi's Leadership for Democratization in Myanmar : Courage Model and Strategy

Gil-Hyun Yang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intended to account for the possibility and strategies of Myanmar's Democratization under Aung San Suu Kyi's leadership. The 'Courage Model' of Suu Kyi's leadership is based on her sense of responsibility and tenacity to make Myanmar 'free from terror.' Her leadership comes from the voluntary fellowship of Myanmar people, which has developed from 1) the authority succession from father to daughter, 2) the overwhelming victory of NLD in the election of May 1990, 3) the political alternative of Suu Kyi to the failure of military rule, 4) the symbolization of the oppressed human rights, and 5) the rising expectation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reconciliation through the democratic processes. Aung San Suu Kyi is required to develop the ability to communicate and mobilize resources in order to continuously secure the support from Myanmar people and induce the military junta to open dialogue as well as intensify international solidarity. Especially, Aung San Suu Kyu will have to focus her activity to open another election as soon as possible.

Key Words: Aung San Suu Kyi, NLD, Democratization, Free From Terror, Political Leadership, Courage Model